

## 제2절 지리적 환경\*

### 1. 위치와 자연환경

#### 1) 위 치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전라남도 동부지역은 마한과 백제의 옛터로, 일찍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왔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국여지승람』에는 “산과 물이 기이하고 고와 세상에서 소강남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순천시의 경·위도상 위치를 살펴보면 극동은 해룡면 호두리 당두(當頭)마을로 동경 127° 35' 이고, 극서가 송광면 월산리 삭시(朔矢)마을로 동경 127° 10' 이다. 극남은 별량면 구룡리 용두(龍頭)마을로 북위 34° 49' 이고, 극북이 황전면 비촌리 칠안(七安)마을로 북위 35° 11' 이며 동서간 약 38km, 남북간 약 39km에 걸쳐 있다.

순천시의 4극

구 분	지 명	극 점	
		경도(동경)	위도(북위)
극 동	해룡면 호두리 당두	127° 35' 18"	34° 53' 03"
극 서	송광면 월산리 삭시	127° 10' 37"	34° 58' 32"
극 남	별량면 구룡리 용두	127° 25' 18"	34° 49' 39"
극 북	황전면 비촌리 칠안	127° 24' 32"	35° 11' 08"

\* 제2절은 이홍영(李洪永) 집필임.

시의 주변에는 동쪽에서 북~서~남쪽으로 돌아가면서 광양시·구례군·곡성군·화순군·보성군·여천군이 접해 있고, 남쪽의 일부는 바다에 면하여 있다. 순천만과 광양만에 있는 해안선의 총연장은 36km에 이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에서는 동쪽으로 광양현의 접경까지 15리요, 북쪽은 같은 현 접경까지 25리, 남원부 접경까지 60리, 곡성현 접경까지 36리이고, 남쪽은 바닷가까지 35리, 낙안군 접경까지 31리, 동북현 접경까지 83리이며, 서울까지 834리라고 하였다. 『호남순천부읍지(湖南順天府邑誌)』를 보면 부읍(府邑)에서 동쪽 광양현 경계까지 15리, 동현읍까지는 28리이고, 좌수영은 80리이며, 방답진에 이르는 데는 150리(『혁지승람』에는 170리)라 하였다. 서쪽 낙안군 경계는 31리에다 군읍(郡邑)까지는 45리, 동북현 경계는 94리(『혁지승람』은 83리)이며, 현읍(縣邑)까지는 111리이다. 남쪽바다는 25리(『혁지승람』은 35리), 북쪽 구례 경계는 61리(『혁지승람』에도 61리)이고, 현읍까지는 70리라 하였다. 곡성현 경계까지는 80리(『혁지승람』은 36리)이고, 현읍까지는 151리, 광양현 경계까지는 25리이고, 서울까지는 27식 22리(『혁지승람』은 834리)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순천시는 이리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 철도와 송정리에서 삼랑진으로 이어지는 경전선 철

도의 교차점이다. 전주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17번 국도와 목포에서 진주~마산~부산으로 이어지는 2번 국도의 교차점이고, 호남·남해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결절점(結節點, nodal point)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순천만과 광양만을 통하여 남해와 접하고 있어서 해상교통도 편리하다. 따라서 일찍이 995년(고려 성종 14)부터 연해군절도사가 주둔하는 등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오늘날에도 여수·여천·광양 3개 시와 여천·구례·곡성·보성·고흥 5개 군의 지역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